

창설 68주년 맞는 안보 제2보루 향군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가 올해로 창설 68주년을 맞았다. 10월 8일은 재향군인의 날이다. 향군은 창설이후 68년 동안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일념으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나 국가적 안보위기가 있을 때 마다 국가안보 제2의 보루로서 중심적 역할을 해왔다.

향군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2월 1일 임시수도였던 부산에서 허정 당시 국무총리와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설식을 갖고 국방부 병무국(지금의 동원국) 예하단체로 탄생했다.

창설 당시 회원은 제대군인 30만 명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68년이 지난 오늘의 향군은 1천만 명의 회원을 자랑하는 국내 최고·최대의 안보단체로 성장 발전했다. 조직도 13개 시·도회와 223개 시·군·구회, 3,121개 읍·면·동회, 22개 해외지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5만여 명에 달하는 여성회와 66개 참전 및 친목단체와도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국내 최대 안보단체 자부심, 그 역할 다해 와 호국영령 명예훼손에도 강력 대응

이와 같이 향군은 시대상황이 바뀌고 안보환경이 변한다 하더라도 국가안보의 제2보루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안보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2017년 8월 11일 제 36대 향군회장으로 김진호 예비역 육군대장이 취임하면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조직을 안정시켜 향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

과거 지나친 이념에 편중된 안보단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오직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을 수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안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10월 8일 창설 65주년을 맞아 ‘향군 정체성선포식’을 갖고 향군의 정체성은 안보단체임을 대내외에 천명하였으며 안보활동 기조와 지침을 만들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면서 기준에 맞는 안보활동을 전개해 왔다.

따라서 2017 미 트럼프 대통령 국민 방한 환영 행사,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지원, 4.27 남북정상회담 성공기원 대규모 환송 행사, 북한 비핵화를 위한 9.19군사합의 지지 성명,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미 워싱턴 ‘추모의 벽’ 건립 성금 모금 전달, 미 참전용사 보은의 밤 행사 개최, 대승적 차원의 지소미아(GSOMIA) 연장 권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스크 및 성금 전달, 한일 갈등 조기 해소를 위한 방일 활동 등 안보단체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특히 최근 일부 정치권과 사회일각에서 이승만 초대대통령과 전쟁영웅 백선엽 장군을 친일로 몰아 ‘국립묘지에서 파묘’ 등을 주장하며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고 호국영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데 대해 성명을 내고 강력히 대응하여 대내외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김회장은 취임과 동시 자체 ‘향군개선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등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을 통해 조직을 조기에 정상화하는 한편 전대에서 물려받은 부채를 5,500억 원에서 4,700억 원으로 줄였다.

경영위기 극복위한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노력 부채 줄이고 국민 신뢰 회복

그 외에도 실질적인 회원들의 복리후생과 자립기반구축을 위해 ‘위례 예비역복지타운’ 조기 건설을 위해 정부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그리고 향군은 지금 이 시간에도 김진호 회장을 중심으로 1천만 회원이 하나 되어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받는 향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강도 높은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직의 기반이 되는 정회원의 확대, 향군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자립기반의 구축, 국민 속의 향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끝으로 68주년 생일을 맞은 향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미 참전단체 “향군, 마스크 지원에 감사”

코로나 극복과 참전용사 사기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 향군, 2개월에 걸쳐 마스크 5만장과 성금 1만불 전달



미 동부 향군이 버지니아 스텔링에서 주한미군 전우회 부회장에게 마스크를 전달하고 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김진호)는 9월14일 지난 6월 말 미 한국전참전단체와 화상회의를 통해 미국 참전단체에 성금 1만 달러와 마스크 5만장을 지원하기로 했던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지난 6월말 재향군인회가 한국전참전협회(KWVA) 등 미국 참전 단체들과 화상으로 실시한 참전용사 보은행사에서 전달식을 갖고 추진해 왔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미 한국전참전협회 제프리 브로저 회장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성금과 마스크 지원은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코로나 극복과 사기증진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사서한과 함께 감사패를 보내왔다.

또 주한미군전우회 월터 샤프 회장은 “성금과 마스크 기부는 두 단체가 함께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고 있듯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와 주한미군전우회 사이의 굳건한 교류 및 협력관계를 지속시키는데 큰 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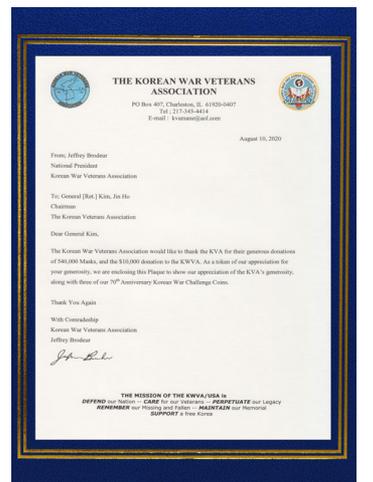
이 될 것이라며 감사서한을 보내왔다.

한국전참전용사추모재단 존 킬렐리 회장은 감사서한에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3천 달러 기부금을 보내준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기부금은 향후 추모의 벽 건립을 위한 재단업무 진행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군은 지난해 7월말 워싱턴에서 350여명의 참전용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참전용사 보은의 밤’ 행사를 개최했으며 워싱턴 한국전참전기념공원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추모의 벽’ 건립사업에 6억3천만원(53만불)을 전달한 바 있다.

향군은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워싱턴을 방문하여 미 한국전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참전용사들의 가족들에게 무한한 자긍심을 고취한다는 차원에서 ‘보은행사’를 준비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행사추진이 불가능하여 대신 성금과 마스크를 전달하게 됐다.

민간단체인 향군에서 마스크를 해외로 발송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구매부터 정부의 반출 및 수출입



제프리브로저 회장이 김진호 회장에게 보내온 감사 서한

승인, 배송지역 별 포장, 운송업체를 통한 발송, 미국에서의 전달 등 쉽지 않은 과정의 연속이었지만 한미동맹에 기여하고자 하는 향군 임직원들의 하나 된 마음이 이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냈다.

미국에 도착한 마스크는 향군의 미국 각 지회 회장단이 해당지역 미 참전용사단체를 방문하여 직접 전달하고 향군의 뜻을 함께 설명하여 참전용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이번에 향군이 민간외교의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창설 68주년 맞은 국내 최대 안보단체, '재향군인회'

※ 본 기사는 국방저널 10월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참전용사 예우와 국군 사기증진, 한미동맹강화 등 안보지킴이로 우뚝 서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창설된 재향군인회는 끊임없는 발전을 통해 지금은 천만 회원을 보유한 우리나라 최대이자 최고의 안보단체로 자리매김했다. 회원 서로 간의 친목을 다질 뿐만 아니라 국가 유공자와 전역을 마친 장병, 현재 복무 중인 장병들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고, 우리 사회 곳곳을 누비며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까지 건네고 있다. 오늘은 창설 68주년을 맞은 재향군인회를 만나보자.

1952년 첫발을 내딛은 재향군인회

올해로 창설 68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한반도에 비극의 총성이 울리던 1952년 2월1일 창설됐다. 1950년 1월20일, 육군은 전역을 희망하는 부사관 2천 명을 선발해 1차로 만기 전역시켜 예비역으로 편입시켰는데, 이들이 바로 최초의 재향군인이었다. 그 후 매월 한 차례씩 전역 조치가 이뤄졌고, 이렇게 제대한 전역 군인들이 재향군인회의 창설을 함께 했다.

재향군인회 창설식은 6·25 전쟁 때 임시수도였던 부산에서 열렸으며, 당시 현역 육군 준장이었던 백흥석 국방부 병무국장이 초대회장을 맡았고, 강인로·전봉덕 예비역 대령이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국방부 병무국(현 동원국) 예하 단체였던 재향군인회의 설립목적은 국방부 병무행정의 집행을 보조하는 예하 단체로서 예비역 장교들이 지역 내 징병 대상자와 기타 예비역 해당자를 관리해 동원 체제에 만전을 기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설립 당시에는 예비역이 아닌 현역이 회장을 맡은 것이었다.

재향군인회는 사무집행기관으로는 이사회를 설치하고, 육군 출신인 신규식 외 12명, 해군 출신 2명, 공군 출신 1명으로 이사진을 구성한 다음 창립 다음 날인 1952년 2월2일 재향군인회 최초의 이사회의를 개최해 고재필 외 7명을 상임이사로 선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1952년 3월15일 충남도지부와 전북도지부가 처음 결성된 것을 시작으로 4월 15일까지 경기, 충북, 전남, 강원, 서울, 경북, 경남, 제주도지부 순으로 전국 지부 결성을 완료했고, 이어 6월30일에는 동·읍·면과 직장에 이르기까지 1,940개의 분회 조직을 구축하였다. 이 덕분에 당시 제대 장병은 수만 명에 지나지 않았지만, 회원 수는 약 30만 명에 달했다.

약 30만명의 회원과 함께 첫발을 내디딘 재향군인회는 1953년 7월27일 휴전협정 체결 이후 국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대한청년단' 조직을 흡수해 140만 명의 '민병대' 조직을 편성한 후 1956년 7월12일 '사단법인' 대한상무회'로 재편됐다. 이후 1960년 5월4일 사단법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로 개칭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점점 여군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 여군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데, 재향군인회는 1991년 7월4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여성회를 조직했다. 향군여성회는 현재 6만여 명의 회원을 확보한 가운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내 최고 최대 안보단체로 자리매김

재향군인회의 회원 자격은 아주 명확하고 간단하다. '남녀노소 병역을 이행한 군인', 즉 군번만 있으면 누구나 재향군인회 회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현재 향군 조직은 13개 시·도회와 223개 시·군·구회, 3,121개 읍·면·동회, 22개 해외지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 수는 대한민국 인구 1/5에 달하는 1천만 명이다. 그야말로 국내 최고이자 최대의 안보단체로 성장하고 발전을 해 왔다. 군 복무를 마친 모든 남녀 예비역 장병들이 모여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높이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명실상부 국내 최대 안보단체로 자리매김한 재향군인회는 그 활동 영역을 세계로 넓혔다. 1961년 5월8일 세계재향군인연맹(WVF)에 가입한 것이다. 그 다음해인 1962년에는 6월 한 달을 '세계 재향군인의 달'로 정하고 다채로

김진호 회장 인터뷰

"안보단체 역할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



Q. 향군 창설 68주년을 맞은 감회는?

A. 한마디로 참 가슴 벅차고 뿌듯합니다.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68년 동안 '안보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일념으로 재향군인회를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국내의 최대 안보단체로 일궈오신 선배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안보 현실과 향군의 현주소를 올바르게 직시하고 시대의 흐름과 안보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창설 68주년을 맞아 대한민국과 5천만 국민의 생존권 수호를 위해 안보단체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Q. 올해 재향군인회의 계획은?

A. 사실 올해는 6·25전쟁 70주년인 만큼,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155마일 휴전선과 6·25 전적지 답사, '2020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등 의미 있는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그 행사들이 연기되거나, 취소돼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을 주시하면서 '한미동맹명문가 시상식'을 비롯한 재향군인회가 계획한 뜻 깊은 행사들을 연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국군 장병들에게...

국군장병 여러분! 72주년 국군의 날을 1천만 향군의 선배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순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무릅쓰고 땅과 바다, 하늘과 이역만리 해외에서 국민의 군대로서 주어진 임무완수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자랑스러운 국군장병 여러분들에게 아낌없는 찬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여러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기에 오늘의 역동적인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운 행사를 펼쳤으며 1963년 6월8일 시청 앞 광장에서 '세계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향군회원도 5천여 명이 참석해 향군의 위상과 단결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향군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면서 정부는 1965년 6월8일, 매년 5월 8일을 '재향군인의 날'로 제정했다. 하지만 5월8일은 어버이날인 데다가, 5월 가정의 달, 농번기 등이 겹치자, 2002년 6월19일에는 재향군인의 날을 10월 8일로 개정했고, 그 이후 지금까지 매년 10월8일을 기념하고 있다.

안보면 안보 봉사면 봉사, 다양한 활동 펼쳐

1,000만 명의 회원이 가입한 '국내 최대 안보단체'답게 재향군인회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향군본부 산하 4,018개의 각급회를 조직해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하

며, 회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친목단합행사를 하고 있다. 우선 재향군인회는 각급회 별로 지역봉사단을 운용하며, 범죄와 폭력추방을 위한 자율방범 활동과 자연보호, 불우이웃돕기, 농어촌 일손돕기, 거리질서 확립, 각종 재난발생시 구호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6.25 참전용사 등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명예선양 활동도 빼놓을 수 없다. 생계가 곤란한 유공자 가운데 생계가 어려운 회원들에게는 매월 일정액의 생계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그분들의 명예와 권익을 높이기 위해 국가차원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 또는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등 안장 대상자가 사망할 시에는 국립현충원과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안장 절차를 협조해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6·25 전쟁 기념일이나 국군의 날을 전후해서는 보훈병원과 군부대에 대한 위문활동 등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현역장병 사기를 높이기 위한 활동도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주민을 위해 마스크 10만장을 전달했는데, 대구지방보훈청은 대구·경북지역의 참전용사, 상이용사, 보훈대상자 등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마스크를 전달했다.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각 분야에서 헌신한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도 향군이 나섰다. 재향군인회 김진호 회장은 지난 5월 계룡대를 방문해서 육·해·공군 참모총장에게 '코로나19' 극복에 힘쓴 장병들을 위한 격려금을 전달했다.

안보활동도 재향군인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특히 재향군인회는 그동안 정치적 성향의 활동을 한다는 오해를 받아왔던 만큼,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고, 순수한 안보단체로서 활동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안보단체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향군 안보활동 기조'를 정립했고, 국민을 위한 안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안보교육과 판문점, 전쟁기념관 등 안보현장 견학, 통일연수원 교육, 대학생 휴전선·전적지 답사 국토대장정은 재향군인회가 펼치는 대표적인 안보교육 활동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 안보의 주역으로서 국민들의 올바른 국가관, 안보관을 정립하고 나라 사랑 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위해 싸웠던 참전용사들에게 보은 활동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1975년부터 6·25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해외 참전용사와 그 가족을 초청해서 참전용사들의 값진 희생과 지원에 보답하고 긍지를 심어주고 있다.

'추모의 벽' 건립 지원, 한미우호 증진 기여

지금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에서는 '추모의 벽' 건립이 추진 중이다. '추모의 벽' 건립은 한국전에서 전사한 미군 3만 6,000여 명과 카투사 전사자 8,000여 명의 이름을 새겨 넣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6.25 전쟁 70주년 기념사에서 "우리 국민들은 미국을 비롯한 22개국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워싱턴 '추모의 벽'을 2022년까지 완공해, '위대한 동맹'이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 위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영원히 기리겠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재향군인회는 2018년부터 추모의 벽 건립 사업에 적극 동참하며 모금 활동을 펼쳤고, 수많은 회원과 여러 안보·보훈단체, 일반 국민 등이 힘을 보탰다. 그 결과 재향군인회는 지난해 7월 '추모의 벽' 건립 사업에 6억3천만 원을 전달했다.

그리고 올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재향군인회는 미국의 한국전 참전단체에 성금 1만 달러와 마스크 5만장을 지원했다.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다. 재향군인회의 성금과 마스크를 받은 미국 한국전참전협회 제프리 브로저 회장은 "재향군인회의 성금과 마스크 지원은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코로나19 극복과 사기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의 감사 서한과 함께 감사패를 향군에 보내왔다.

향군, 인천 초등생 화재사고 형제에 온정

십시일반 모금, 540여만 원 기탁...향군장학금 지급도 검토

향군은 9월14일 발생한 인천 용현동 소재 빌라 화재로 중화상을 입고 현재 의식불명인 상태로 병원에 입원 치료중인 형제를 돕기 위해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아 9월23일 사단법인 학산나눔 재단에 지정 기탁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두 형제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자 향군본부 임직원들은 자발적인 성금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5백40여

만 원을 모금했으며 “어린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이다 불의의 화재로 인해 중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힘든 치료를 받고 있는 형제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성금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진호 향군 회장은 “10살 밖에 안 되는 어린 형이 자기 목숨을 걸고 동생을 살리려 애썼던 ‘혈육지

정’의 기특한 미담은 메마른 사회에 큰 교훈을 주고 ‘코로나 19’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면서 매우 안타까워했다.

한편 향군은 이들 형제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으며 건강이 좋아져 추후 대학에 진학할 경우 향군 장학금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향군역사 바로알기 ㉔

향군개발사업본부 신설, 부동산개발 등 사업 다각화

무리한 투자, 재정위기 촉발 ... 정부의 수의계약 중단도 한 몫

향군 수익사업의 변천 과정 (중)

1990년대 들어와 향군 수익사업의 관건은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본회는 1994년 12월14일 제5차 이사회에서 직영사업본부를 개편하고 회관사업본부와 제조사업본부로 조직을 분리하여 책임경영제를 도입했다.

또 이때 복지사업 개발단을 운영하여 향군 패밀리카드 사업 진출, 향군 우대가맹점제도 시행 등으로 향군회원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향군우대가맹점 시행, 복지증진 위한 노력 전작권 전환 등 안보정책 놓고 정부와 대립

2000년대는 본회에 향군개발사업본부를 두고 고속도로휴게소사업본부, 정보통신 사업본부 등을 신설하고 기존 직영사업본부도 개편하여 수익사업을 강화했다.

2000년 12월 4일 신탄진 휴게소(상행선)와 금산인삼랜드 휴게소(하행선)에 대한 운영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정보통신사업은 향군이 포털사이트 구축을 추진하면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이후 위성방송 사업 등에도 진출하였으나 내세울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004년 향군개발사업본부는 사업개발본부와 용역사업본부를 두고 부동산개발투자 등 사업 다각화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했으며 이러한 무리한 투자는 결국 향군재정위기의 발단원인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재정위기의 원인을 무리한 사업투자에만 돌 것은 아니다.

2003년 2월 노무현정부가 출범하면서 ‘전시작전권 환수’, ‘보안법 철폐’ 등 민감한 안보문제를 들고 나오자 향군은 이를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1천만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강력히 맞서 나갔다.

그러자 당시 여당과 언론들은 향군을 눈에 가시로 보고 억압하기 시작했으며 그동안 정부가 발주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해오던 것을 특혜라며 2008년말 부터 이를 중단했다. 결국 수익계약 혜택이 없어지면서 향군은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또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도 원인 중 하나다. 당시 언론들은 이러한 향군내부의 어려움을 집중 보도하면서 향군의 부실사업을 부각시켰고 금융권에서는 신용도를 내세워 대출을 거부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2011년 8월15일 MBC보도 당시 향군의 부채는 6,287억원이었고 그 이후 자금유동성이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 2013년 2월 일시적으로 만기대출을 막지 못해 자산을 압류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그러나 그 해 4월 금융전문가를 경영고문으로 영입하여 3,500억원의 장기 저리자금 조달함으로써 급박한 위기 상황은 모면하게 되었다.

재정위기 극복위한 전사적 노력 펼쳐 잠실 랜드마크 향군타워 준공으로 희망 이어가

그 이후부터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이 전사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중 가장 효자노릇을 한 것은 향군타워 준공이다. 향군타워는 2003년부터 추진을 해왔으나 중간에 시공사 변경으로 사업 중단 사태가 있었다.

2009년 8월 31일 신동아건설과 계약하여 4년만인 2013년 3월 28일 지하6층 지상30층으로 준공하고 4월5일 성대하게 준공식을 가졌으며 잠실의 랜드마크로 우뚝서게 되었다.

향군은 2011년 재정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으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전 임직원들이 고통을 분담하여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도 약 5000억원에 가까운 부채를 안고 있으며 매년 이자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향군성명

북한의 반인륜적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군은 지난 9.22일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할 의사도 없는 무고한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워 훼손하였다. 이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천인공노할 만행으로 1천만 향군은 아래와 같이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의 반인륜적 만행은 대한민국에 대한 중대한 무력도발이다.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운운하면서 이번 사태와 같은 반인륜적 만행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도발을 서슴지 않았다. 이는 한반도의 안정과 동아시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향군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도발행위의 즉각 중단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

■북한은 이번 사건의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북한은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사건 발생 1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침묵하다가 또다시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행위이므로 북한은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또한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

■UN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이 또다시 만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강구하라.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평화정착 및 9.19 군사합의 이행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저지른 GP 총격사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비무장 국민 총격 살해 등의 만행은 우리의 인내 수준을 넘는 도발행위이다.

따라서 정부는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외교적 활동으로 북한이 또다시 이와 같은 만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병행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와 군은 북한이 우리 군을 알잡아보지 못하도록 철저한 대응전략을 강구하라.

밥 우드워드와의 신간 「격노(Rage)」에서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 “현재든 미래든 남한 군대는 나의 적이 될 수 없다” 라고 오만한 망언을 저질렀다. 이는 김정은이 북한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여 우리 군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하면서 최근 군사적 도발을 자행해 온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도 그들은 이번과 같은 만행을 반복할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는 이에 대한 핵 대응 등 전략적 대응방책을 강력히 추진하라.

국가안보 제2보루인 1천만 향군은 실종된 어업지도원이 북한군에 의해 희생된 사건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북한의 반인륜적 만행에 대해 온 국민과 함께 분노하며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한다. 향군은 또다시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안보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국가안보 제1보루인 국민이 안보 중심 역할을 다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0. 9. 25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향해 노력해야”

트럼프, 핵 비확산 의지 강조 ... IAEA 총회 메시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월21일(현지시간)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를 맞아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향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총회 시작일인 이날 총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전 세계 국가는 핵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대응 필요성이 있는 국가 사례로 이란과 북한을 꼽았다.



제 47대 서욱 국방부 장관 취임

국방태세 확립, 한반도 평화정착 뒷받침



겠다”며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은 효율적인 무기와 작전체계, 굳건한 임무 완수 의지, 지속적 훈련을 통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안보 정세에 대해서는 “주변국의 자국 이익 추구로 지역에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코로나19, 재해재난, 테러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이 국가 안보의 도전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47대 서욱 국방부 장관이 9월18일 취임했다. 신임 서욱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역사적인 9·19 군사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장관 이·취임식에서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평화정착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안보환경 개선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뒷받침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시대적 요구인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면서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을 포함해 그동안 축적해 온 우리 군의 능력을 정밀히 평가해 전환 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킬 것”이라며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

- ▶ 육군사관학교 41기
- ▶ 육군 제25보병사단장
- ▶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
- ▶ 제1군단장
- ▶ 제48대 육군참모총장



제72주년 국군의 날 ... 북한위협에 단호히 대응

제72주년 국군의 날 행사가 9월 25일 국군 역사상 최초로 육군특수전사령부(경기 이천 소재, 이하 특전사)에서 개최됐다.

10월1일 국군의 날이 추석연휴인 점을 감안, 이날 개최된 국군의 날 행사는 평화를 만드는 ‘미래국군’을 주제로 각 군 기수단과 특수전 정예 장병들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의례, 훈·포장 수여, 기념사, 각군 특수전 영상, 공중전력기동, 특전요원 헬기레플 순서로

진행됐다.

국방부는 2017년부터 그해의 행사 주제를 고려해 국군의 날 기념식 장소를 선정해왔으며 69주년(2017년) 해군2함대사령부, 70주년(2018년) 전쟁기념관, 71주년(2019년) 대구 공군기지에 이어 올해는 특수전을 상징하는 특전사를 개최 장소로 선정했다.

또 이번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평일에 진행됨에 따라 지상과 방송 생중계와 더불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이하 SNS / 페이스북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한 실시간 방송도 실시됐다.

이날 국방부는 행사·지원부대 전 인원 PCR검사, 체온측정(1일 2회), 숙영시설 손소독제 비치, 생활관 외부인원 출입통제, 식사 시 충분한 이격거리 유지 등 방역지를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행사를 진행했다.

제42대 원인철 합참의장 취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적 도발에 단호히 대응



제42대 원인철 합참의장(사진)이 9월 23일 서울 용산구 합참 연병장에서 취임식을 갖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는 군과 합참의 최우선 과업”이라며 “평시 경계작전의 완전성을 높이고 어떠한 적의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9·19 남북군사합의의 충실한 이행과 한반도 평화시대로 나아가는 정부의 노력을 힘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무엇보다 연합·합동작전 역량 강화를 위해 합동성을 기반으로 국방개혁2.0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전작권 전환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우리 군의 방위역량을 지속 확충하면서 적극 추진하고 미래지향적인 한미 군사동맹을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이버 공격, 테러, 재해·재난, 감염병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도 구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사 32기로 임관한 원 의장은 합동참모차장,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공군작전사령관 등을 역임한 공중 작전과 합동작전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국방단신

의무사령부, ‘코로나19 체크업 앱’ 출시

국군의무사령부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 국내 감염확산에 대응하여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관련 앱(Application)을 최종 출시했다. 앱 개발자인 의무사 허준영 대위(신경과 전문의)를 대표로 한 닥클 프로젝트(DOCL Project, Doctors on the Cloud Project)는 지난 3월2일부터 의무사에서 자체 개발해 제공해왔던 코로나19 관련 모든 앱 서비스를 취합해 수정·보완하고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진자와 미확진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체크업(COVID-19 CheckUp) 앱’을 출시했다.

‘코로나19 체크업(COVID-19 CheckUp) 앱’은 국내 최초로 정부 기관과 협업하여 개발한 코로나19 예측·예방용 앱(App)으로서, 하병만(육군 대령) 의무사 보건운영처장을 비롯한 군 의료진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박유량, 윤상철 교수, 자원봉사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 4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지난 6월부터 약 두 달에 걸쳐 완성됐다.

전역예정 장병 온라인 취업박람회

국방부는 ‘내일(My Job)이 있는 삶을 위하여’라는 슬로건 아래 일자리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의 후원을 받아 9월9일 전역장병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0년 하반기 전역예정 장병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 19 확산세를 고려하여 현

장 전시관을 운영하지 않는 대신 ‘실시간 쌍방향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던 장병들과 기업 담당자, 전문 상담사간의 대면 컨설팅을 온라인 공간에서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국방부는 온라인이라는 공간적 제약 하에서도 장병들에게 밀도높은 컨설팅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구직의사와 전역일자 등을 고려하여 실시간 쌍방향 프로그램 참가규모를 약 260명으로 확정해 박람회를 진행했다.

취업박람회 공식 홈페이지(<http://moti.career.co.kr>)는 연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전역장병 우대 채용정보’, 희망기업에 재직 중인 ‘현직자 멘토링’, 직무별 면접비법 등 실속있는 ‘취업 노하우’ 및 전문 상담사와의 ‘1:1 취업상담’ 등이 제공된다.

군 장병에게 감사편지 보내기 캠페인

병무청은 전 국민이 군 장병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표현하는 ‘군 장병에게 감사편지 보내기’ 캠페인을 9월7일부터 10월31일까지 55일간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1회차를 맞이한 ‘군 장병에게 감사편지 보내기’ 캠페인 주제는 ‘국군장병 여러분! 당신이 있어 우리 국민 모두는 든든합니다.’이며 참여대상은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방법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군 장병 감사편지 보내기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병무청은 이번 행사에 국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편지 작성 참여자 중 매주 추첨을 통하여 음료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 제72주년 국군의 날 축

국군장병여러분! 1천만 향군회원의 이름으로 72주년 국군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내년 국가보훈 예산 5조 7,866억원... 올해 대비 1.9% 증가

국가유공자 등 영예로운 생활 지원 및 현충시설 건립사업 확대 등 중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2021년도 국가보훈 예산안을 2020년 본예산 대비 1.9% 증가한 5조 7,866억원으로 편성하여 9월3일 국회에 제출했다. 2021년 예산안은 국가유공자 등 영예로운 생활 지원을 위한 ①보상금 및 수당 인상, ②의료·복지 서비스 개선, ③국립묘지 신규 조성 및 확충, ④독립·호국 관련 현충시설 건립사업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먼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의 영예로운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보상금을 3% 인상하는 등 4조 4,446억원을 편성했다. 국가유공자 중 6.25전쟁, 월남전 및 전투 수형 중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58,810명)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을 월 2만3천원에서 9만천원으로 약 4배 인상(635억원)한다. 고령 독립유공자, 국가유

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상이유공자의 교통시설 이용 불편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의 보훈병원 진료비 지원을 위해 3,855억원을 편성했으며 원거리 거주로 보훈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국가유공자의 근접 진료 지원을 위해 위탁병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했다. 이에 소요되는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을 위해 2,350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의료-재활-요양을 연계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재활센터 확충(3개소) 및 보훈병원 시설개선(3개소), 보훈요양원 건립(1개소) 등 의료환경 개선사업에 532억원을 투입한다. 중앙보훈병원치과병원 증축 56억원, 대전보훈병원 리모델링 40억원, 인천보훈병원 응급실 설치 35

억원, 부산, 대전,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 174억원, 전북권 보훈요양원 232억원 등이다.

아울러 상이 국가유공자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 12만 명의 교통시설 이용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2.4억원을 편성했다. 고속·시외버스, 내항여객선의 온라인 예매 시스템 개발하고 시내버스 이용 불편 개선을 위한 교통복지카드 전국 호환 시스템 구축 계획(ISP 실시)을 수립한다.

고령화에 따른 안장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국립묘지 신규조성 및 확충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제주(1만기)와 연천(5만기)의 국립묘지 조성에 280억원을 편성했으며 기존 국립묘지의 만장을 대비하여 추진하던 대

전현충원과 이천호국원의 확충 사업 외에 새로이 괴산호국원과 임실호국원 확충을 위한 설계비 15억원 등 총 200억원을 편성했다.

독립·호국 관련 현충시설을 건립·지원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에도 힘을 예정이다. 2017년부터 추진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을 위해 287억원을 투입하여 내년 11월에 개원하며 우리나라의 자유 수호를 위해 6·25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내·외 5개 사업에 3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 '추모의벽' 267억원, 미 플러튼 한국전참전용사 기념비 2.6억원 등과 국내 그리스군참전비 이전 8.8억원, 무안 참전기념비 1.5억원, 세종국가보훈광장 20억원 등이다.

7,420명 참전, 필리핀군... 6·25참전 70주년 행사

연천 율동전투에서 큰 공, 정전 후 한국 재건위해 많은 지원



필리핀 6·25참전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박삼득 국가보훈처장과 내빈들

국가보훈처는 9월18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필리핀군 참전기념비에서 필리핀 6·25전쟁 참전 70주년 기념행사를 거행했다.

6·25전쟁 당시 필리핀군 부산항 입항일(1950. 9. 19)에 맞춰 열린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을 고려하여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크리스티안 헤수스(Christian L. De Jesus) 주한필리핀 대리대사, 스튜어트 캠벨 메이어(Stuart

Campbell Mayer) 유엔군 부사령관, 이재준 고양시장, 장광선 육군 제1군단 부군단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참배로 진행됐다.

6·25전쟁 당시 필리핀은 미국·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지상군이 참전한 국가로, 부산 입항일인 1950년 9월 19일부터 1953년 5월 13일까지 연인원 7,420명이 참전했다.

필리핀군은 1950년 10월1일 미 제25사단에 배속되어 활동을

시작한 이후 연천 율동 전투(1951. 4월) 등에서 큰 공을 세웠으며, 112명이 전사하고 299명이 부상, 16명이 실종되고 41명이 포로가 되는 등 많은 희생이 있었다.

또한 정전 이후에도 한국의 재건을 위해 많은 지원을 했을 뿐 아니라 주력 철수 이후에도 유엔군사령부에 소수병력을 주둔시켜 정전협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보훈단신

제21회 보훈문화상 후보자 접수

국가보훈처는 9월21일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시상하는 2020년도 '제21회 보훈문화상' 후보자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훈문화상 시상상은 지난 2000년부터 시작했다. 그동안 독립·호국·민주관련 유공자와 유엔참전용사 등을 예우하고 널리 알린 개인과 단체 총 105인(팀)에게 수여했다.

특히 올해부터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다양한 후보자를 적극 발굴하고, 보훈문화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지도 향상을 위해 평소 국가보훈의 가

치를 널리 알리는데 노력해온 매일경제와 공동으로 주최한다.

후보자 접수는 9월21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나라사랑 배움터' 누리집(<http://edu.mpva.go.kr>)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고 수상자는 오는 12월에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보훈문화상은 올해부터 다양한 분야의 공로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시상 부문의 구분 없이 개인 및 단체 5인(팀)을 선정하며, 수상자에게는 국가보훈처장 상패와 상금 각 1,000만원(총 상금 5,000만원)이 수여된다.

서울현충원, 비대면으로 나라사랑 교육

국립서울현충원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대면 교육이 제한되어 '비대면 나라사랑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비대면 교육 과정은, 기존 나라사랑 교육 내용을 포함하여 현장에서 교육하듯이 학생들과 소통하며 스스로 사고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교육에 필요한 교재, 교구 일체와 참여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참여 학생 중 우수학생에게는 국립서울현충원장 표창과 기념품 등을 제공한다.

비대면 호국강연회는 9월4일부터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신청 학교에 '호국영웅을 만나는 시간 여행, 국립서울

현충원' 영상(30분, 대한민국 홍보전문가 서경덕 교수 출연, 수여 포함)을 보내 준다.

온라인 나라사랑 체험학습(3교시, 2시간)은 9월10일부터 전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각급 학교에서 신청하면 학교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수업 플랫폼에 맞춰 3원 방송(전시관, 강의실, 묘역)으로 전문 강사가 실시간 교육한다.

비대면 유아 체험학습(15분)은 9월21일부터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를 대상으로 운영하며 각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 유아 눈높이에 맞춘 현충원 모형 만들기 교구와 설명 영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구 종류는 현충문(7세), 현충탑 연필꽃이(5세), 유관순열사(4세) 등 5종이다.

“사실이 이렇게습니다.” 문답으로 풀어보는 구국의 영웅, 백선엽 장군



친일논란

◆1941~45년 일본 패망 시까지 일제의 식민지였던 만주군 장교로 복무하면서 친일활동을 했다?

☞ 백선엽 장군의 만주군 복무 관련 사항은 명확한 사실이 아니다. 당시 일제 식민지라는 상황 속에서 꿈을 가진 젊은 청년의 선택에 대한 평가는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의 기준으로 당시를 평가할 수는 없다. 시대 상황과 상관없이 누구나 다양한 진로 선택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주군 복무만을 꼭 짚어내 친일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백선엽 장군은 1940년 「만주봉천군관학교」(2년제) 마지막 기수인 9기로 입학하여 1942년 2월 만주국 소위로 임관하였다. 임관 후 자무스의 「만주군 신병학교」 소대장 겸 교관을 1년간 역임했고, 1943. 2월~45. 8월까지 연결된 명월구 소대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국권을 상실한 일제의 식민지로 배움이 필요한 깨어 있는 젊은이들은 각자 자신의 처지에 맞는 삶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진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2010년 발간된 백선엽 회고록 「조국이 없으면 나도 없다」에 따르면 평양사범학교 졸업(40. 2월) 후 뒤늦게 계속해서 배우고 싶던 차에 후일 비행사로 이름을 날린 박승환과 이상렬 등 만주군관학교 생도들을 알게 되었고 이들로부터 군인의 길을 권유받았다. 당시 극한의 힘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으로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군인의 길을 선택한 것임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만주군 복무가 곧 친일이라는 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종의 매도 행위다. 이는 일제 강점기에 다양한 분야에 일했던 수많은 조선인 모두가 단지 그 조직에 소속되었기에 친일행위자였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항일세력을 무력 탄압하는 조선인 특수부대인 '간도특설대' 장교로서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했다?

☞ 백선엽 장군이 간도특설대에 부임했던 1943년 초에는 게릴라 활동은 거의 봉쇄된 상태였다. 백선엽 장군을 폄하하는 측이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의 친일행위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 하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간도특설대에 근무했기 때문에 항일세력을 무력 진압

백선엽 장군의 서거를 시점으로 국립현충원 안장에 부정적 시각을 가진 일부 정치권 및 단체 인사들이 만주군 복무 및 간도특설대 경력과 관련하여 친일활동을 했다며, 국립현충원 안장 반대를 주장했고 이후에도 끊임없이 파묘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6·25전쟁 관련 업적이 부풀려졌거나 왜곡되었다고 하는 일부 인사들의 주장도 지속되고 있다. 이 모든 논란은 구국의 영웅 백선엽 장군에 대해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진실을 외면한 채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 편향되고 왜곡된 기준을 잣대로 친일과 전쟁영웅이 아님을 부각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영웅을 욕되게 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음을 바로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밝힌다.

했다고하는 것은 친일을 전제해 무리한 논리의 비약이며 억지 주장일 뿐이다.

2000년에 발간된 일본어판 백선엽 회고록 「젊은 장군의 조선 전쟁」에 따르면 간도특설대의 임무는 주로 잠입 및 파괴 공작으로 만주군 부대 중 총검술, 검도, 사격이 가장 우수한 최정에 부대였다.

간도특설대 부대장과 간부 일부가 일본계였고 나머지는 조선계로 편성된 부대다.

관동군 독립수비대와 만주국군은 1939년 10월 ~ 1941년 봄까지 만주 연결된 지역인 동부 만주에서 대규모 토벌 작전을 수행했다. 이 작전은 최전성기인 관동군의 위신을 걸고 실시된 작전으로 언론에 대서특필할만한 전과를 올렸던 부대는 간도특설대였다. 이 때 김일성이 포함된 「동북항일연군」은 1940. 9 ~ 11월 사이의 토벌 작전으로 「고난의 행군」을 거쳐 소련으로 피신한 상태였다.

이와 같이 백선엽 장군의 간도특설대 관련 자료는 회고록 외에는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미비한 상황에서 친일을 주장하는 측이 참고하였다는 일부 중국 자료에서도 그들의 입장에서 본 적국인 간도특설대의 전반적인 토벌 작전 관련 내용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회고록을 통해 친일행위를 스스로 인정했다?

☞ 만주 지역 항일 독립군이 활동하던 시기(1939~1943년)에 백선엽 장군은 임관 1년 차 장교로 자무스 부대 교관이었고 간도특설대(1943. 2월~1945. 8월)에서도 중위(24세)였던 것을 보아 복무한 시기로 보나 계급으로 보나 결코 중요 역할이 주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특히 백선엽 장군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동족상잔」의 사례들에 대해 가슴 아픈 소회를 밝혔을 뿐 자신이 직접 토벌했다고 시인한 것이 아니다.

회고록 내용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간도특설대는 소규모이면서도 군기가 잡혀있던 부대였기에 게릴라를 상대로 커다란 전과를 올렸 던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우리들이 추구했던 게릴라 중에는 많은 조선인이 섞여 있었다. 주의 주 장이 다르다고 해도 조선인이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었던 조선인을 토벌한 것이기 때문에 「이이제이」를 내세우는 일본의 책략에 완전히 빠져든 형국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전력을 다해 토벌했 기 때문에 조선의 독립이 늦어진 것도 아닐 것이고 우리가 배반하고 오히려 게릴라가 되어 싸웠 더라면 독립이 빨라졌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동료에게 총을 겨누는 것은 사실이고 비판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중략) 「민중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평화로운 생활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길을 뚫고있는 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대 게릴라전, 미국은 왜 패배했는가」, 1993년, 일본어판 내용

일부에서는 백선엽 장군의 회고록 「군과 나」 일본어판에서 직접 동료에게 총을 겨누는 것은 사실이고 비판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 라며 독립군을 대상으로 토벌활동을 시인한 바 있다고 주장하지만, 위 내용은 「군과 나」의 내용이 아닌 1993년 발간한 일본어판 「대 게릴라전, 미국은 왜 패배했는가」에 실린 내용이다.

위에서 제시된 내용 앞의 문맥에서는 “내가 부임했을 때는

이미 게릴라 활동이 사그라들었고 순찰은 나갔으나 게릴라와 교전한 일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항일 독립군과 김일성, 주보중 등 항일연군 잔존세력은 이미 1940년 말 이전 러시아 영토로 피신해 있었으므로 백선엽 장군 부임 시인 1943년 2월은 사실상 만주 일대의 항일세력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백선엽 장군의 발인 내용은 간도특설대의 임무와 전반적인 작전상황 고려 시 결과적으로 일본의 「以夷制夷」에 우리 조선인이 이용당했음을 이야기한 것이다. 즉 백선엽 장군이 광복 활동을 하는 조선인을 토벌한 것이 아니라 간도특설대의 창설 배경과 임무상 서로 총부리를 겨누게 된 상황과 관련한 비판에 대해 어쩔 수 없었음을 애둘러 밝힌 것이다.

6·25전쟁 영웅 논란

◆6·25 당일 전선에 있지 않고 육본 장교구락부 낙성 기념 축하 파티에 참석해 부대 복귀가 늦어 초기 방어전투에 실패했다?

☞ 6. 25일 당시 백선엽 대령은 육본 명령으로 50. 6. 14일부터 시흥의 보병학교에서 「고급 지휘관 과정」 과전 중이였으며 기간 중 1사단장 대리근무는 11연대장 최경록 대령이었다. 백선엽 장군은 이 날 아침 7시경 전쟁 발발 소식을 듣고 즉시 육본으로 달려가 총장에게 복귀여부를 확인 후 미 군사고문관 로크웰 중령과 함께 오전 9시경 수색에 있는 사단사령부으로 복귀하여 부대를 지휘하였다.

◆개전 초 주요 전투인 개성, 문산·파주 등지에서 백선엽 장군의 1사단이 한 일은 후방으로 후퇴하면서 패전병을 모으는 일 뿐이었다?

☞ 개전 초 패퇴를 두고 비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개전 초기 한국군 사단 가운데 6사단과 8사단을 제외한 나머지 부대들은 열세한 전력과 적의 기습으로 중대한 대응을 한 사단은 없었다. 당시 1사단의 철수작전도 육본의 「작전 명령 84호」에 의거 임진강선, 통일전을 점령 방어한 것이고 1사단은 그나마 후퇴작전간 단기간에 수습한 부대였다.

◆서울이 조기 점령당한 것은 1사단의 무기력한 초전 실패가 원인이다?

☞ 6.25전쟁 초반에 북한군의 기습남침과 강한 압박으로 국군이 방어작전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며 이로 인해 서울이 조기에 점령당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렇다고 이 책임이 전적으로 1사단에만 있다고는 볼 수는 없다. 역사학자 백선엽 장군을 영웅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초전 실패의 시행착오를 딛고 낙동강 방어선 구축 이후 한국전쟁 시 가장 두드러진 활약과 전공으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 공을 일체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당시 우리 군은 창군된 지 불과 2년 밖에 안 되었으며 사단 지휘관들은 30대 초·중반으로 전쟁은 물론 대부분 지휘경험이 없는 전직 광복군 또는 일본군 간부 출신들로 편성되어 있었고 당시 국군의 전력과 대비태세 등을 고려한

다면 초전의 실패를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부동 전투 시 백선엽 장군의 1사단은 낙동강 방어선에 배치된 8개 사단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는데도, 마치 1사단이 북한군 공격 전체를 막아낸 것처럼 과장하면서 타 지역 전투를 소홀하게 다루었다?

☞ 1사단이 낙동강 방어선 전투 시 8개 사단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당시 1사단의 작전은 주공인 북한군 4개 사단(1, 13, 15사단, 105전차사단)과의 전투로 임시수도가 위치한 대구 방면의 위기를 극복한 성공적인 방어전투였다. 한국전쟁사에서는 마산-진동에서 포항에 이르는 모든 전투를 다루고 있으나 임시수도인 대구 방면에 결정적 역할을 한 전투를 다루다 보니 1사단의 작전만 부각된 것처럼 보인 것이다. 모든 전투 중 어느 것 하나 가법할 수는 없겠으나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서 백미는 1사단이 치른 다부동 전투였다는 것이 역사적 평가이다.

이들이 과장되었다고 비난하는 다부동 전투의 경우 8월 초순순까지 북한군의 주공 지역이었음이 「북한 공간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 전투에서 1사단이 북한군의 강력한 주공을 맞아 1만여 명의 사상자를 내며 끝내 방어에 성공한 것은 무엇이라 비판할 것인가 의문시되는 역시 주장에 불과하다. 오늘날 다양한 북한 및 소련측 자료에 의해 당시 전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백선엽 장군에 대한 전사는 국방부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사실임이 증명되었다.

◆다부동 전투의 승리 요인은 미군의 포병화력과 공중공격에 의한 것으로 1사단은 무력화된 적을 상대했을 뿐이다?

☞ 당시 1단에 증원된 미27연대와 이를 지원하는 미 포병, 그리고 공중지원은 전력면에서 열악했던 한국군에게는 큰 힘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화력 전투로 인해 1사단의 역할이 미미했다는 것은 방어전투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방자는 공자의 공격을 둔화시킬 목적으로 포병과 공중지원을 받도록 계획하여 시행하는데 결국 방어선에 도달하는 적은 배제된 포병전력에 의해 방어의 승패가 결정나게 되어있다. 1사단의 다부동 전투시 밀고 밀리는 치열한 전투상황은 6.25전쟁사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부동 전투에서 후퇴하는 장병에 대한 현장연설과 사단장 돌격 등 전투 지휘에 대해, 후퇴를 잘하는 백선엽 장군의 전력을 보아 사실이 아닐 것이다?

☞ 다부동 전투 시 후퇴하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은 북한군의 강력한 공격으로 공포에 질린 병사들을 향해 “내가 후퇴하면 나를 쫓아”며 전투에서 돌격했고, 그 결과 북한군 3개 사단의 총공세를 보름이상 막아낸 영웅적 실화를 당시 같이 참전한 장병들과 마이켈리스 미27연대장 등이 증언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다.

◆백선엽 장군의 승승장구는 미 군사고문단의 극진한 대접해 맺은 인연이 그 배경이다?

☞ 백선엽 장군이 미 군사고문단의 입김으로 출세가도를 달렸다는 것은 당시 미군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몇 안되는

한국군 지휘관으로서 일부 수군이 가는 면도 있었으나, 대부분 한국군 지휘관들은 전반적으로 젊었으며 전쟁경험은 물론 작전 지휘능력이 미흡하여 미군 지휘하 연합작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에서 미군과의 소통이 가능한 백 장군의 능력은 플러스 요인일 수밖에 없었다.

6.25전쟁간 많은 영웅들이 훌륭한 리더십으로 풍전등화와 같은 대한민국을 지켜낸 일등 공신들이었다. 그들 중 가장 빠르게 진출한 백 장군에 대한 시기와 질투는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하나 그가 권력주변에 머물며 성공가도를 달린 것이 아닌, 오직 전투현장에서 장병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이루어낸 결과이므로 공적에 대해 이렇저런 평가를 하는 자체가 영웅에 대한 모독이다.

우리가 전쟁영웅으로 받들고 있는 전쟁초기 선전했던 김종오 장군도 현리전투에서 참패하였고, 이성이 장군도 1·4후퇴 시 실수로 군법회의에 회부된 적이 있는 것처럼 6·25전쟁 시 백전백승의 완전무결한 장군은 없었다.

◆1983년 국방부가 선정한 4대 6·25전쟁 영웅에 김종오, 김홍일(맥이더, 리지웨이)은 있으나 백선엽 장군은 없었다는 이유로 조작된 영웅이다?

☞ 박경석이 주장하는 6·25전쟁 4대 영웅 관련해서 1983, 1984년 국방부와 육군본부 선정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밝혀진 것이 없으며, 설사 있더라도 4인만 영웅이고 나머지 참전 군인들은 영웅이 아니라는 논리도 동의할 수 없고 영웅이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다.

◆평양탈출시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됨에 따라 북한군은 지리멸렬되어 퇴각하기에 급급한 상태였다?

☞ 북한군은 그들의 수도 평양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였고 아군의 우세한 공격과 공중, 포병 공격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것은 사실이나 결코 평양 방어를 포기하지 않았었다. 아군의 평양 입성 초기에는 북한군도 강력하게 저항하였다.

◆평양탈출은 텅 빈 도시에 무혈입성인데 지나치게 과장되어 부풀려졌다?

☞ 평양탈환작전은 1사단이 타 부대보다 늦은 출발과 기동력 열세를 극복하고 지휘관의 열정과 투혼으로 미군보다 먼저 평양에 입성해 북한군의 전의를 크게 약화시킨 성공적인 작전이다. 아군 평양 입성 초기 북한군의 강력한 저항이 있었으나 한·미의 효과적인 소탕 작전으로 입성 하루만에 평양을 완전 탈환한 성공적인 작전으로 결코 무혈입성은 아님을 6.25전쟁사에서 입증했다.

당시 유엔군의 38선 돌파 및 북진이 결정된 이후 북한의 수도 평양탈환을 목표로 하는 진격작전은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온 국민의 큰 관심사였으며 미1군단과 국군 제2군단의 평양 선두 입성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미기병사단보다 2일 늦은 50. 10. 11일 38선을 돌파한 1사단은 기동력의 부재로 지지부진한 진격으로 고전하고 있었다. 백선엽 장군은 1사단 지원 미군포병사령관의 조언으로 미1군단에서 전차를 지원받아 보·전·포·공의 ‘패튼식 전법’을 구사하며 전진하여 평양에 최초 입성하는 부



대가 되었다.

◆백선엽 장군이 30년 동안 군사편찬연구소 셀프 지문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자신과 일본군 출신 장군들을 미화시키고, 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이 백선엽 장군의 이야기를 비판없이 기록해 왔다?

☞ 먼저 백선엽 장군의 자문위원 활동 기간은 30년이 아닌 2003~2020년까지 17년간이다. 게다가 셀프 자문위원장이라는 것 자체가 허위사실이다. 연구소는 자문위원을 자체적으로 선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백선엽 장군이 임명된 배경은 당시(2003년) 6.25 전쟁 관련 북한 등 정적국 자료와, 비밀 해제되어 공개된 미군 자료 등이 상당수 수집되어 전쟁사를 재정리하기 위해 백 장군의 국군창군과 전쟁경험 등의 경력을 고려해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의거 정식 임명되어 직을 수행한 것이다.

주장도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의 전력과 공과(功過)를 치우침 없이 당시의 상황에 맞는 정당한 역사적 사실을 고려해 평가해야 한다. 이미 역사적 사료를 통해 입증된 전쟁사에 대해 개인의 주장과 맞지 않는다고 부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더욱이 그저 있을법한 사실과 확정 관향된 사실의 결과를 진실인 양 호도하는 것은 편협된 주장일 뿐이다.

◆백선엽 장군은 자신의 자리(자문위원장)를 활용해 자신을 영웅화하고 미화하면서 간도특설대 활동이나 초기 전투 실책은 말하지 않고 다부동 전투와 평양 입성 전투만 과장함으로써, 한국전쟁시 마치 대한민국을 혼자서 구한 것처럼 기록하거나 떠받드는 것은 명백한 역사 왜곡이다?

☞ 국방부가 발행한 6·25전쟁사는 전사를 임의로 가공한 것이 아니라 당시 전황에 대해 전쟁 당사자들이 공개한 자료와 참전자 증언자료 등에 의거하여 입체적(한국군+북한+소련+미군)으로 검증한 결과물이다. 6.25전쟁사는 이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총11권이 발간되어 있다. 특히 주요 전투와 관련해 특별히 백선엽 장군을 미화하기 위해 부풀려진 전사가 아니라 당시 전황 중 국군이 달린 가장 중요한 작전을 제시했을 뿐이며 전사에는 타 전투 상황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역사왜곡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전쟁사를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가설’을 세워 부정하는 행위는 온당치 않은 처사이다. <끝>

광주·전남 향군-남도일보 상생 업무협약 회 활동 홍보자료 제공 및 언론보도 협력



광주 전남 향군(회장 나종수)은 9월9일 안보회관에서 지역 언론인 남도일보(사장 김성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생 발전을 위해 언론홍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남도일보는 남도일보 지면과 앱을 활용해 향군활동 등에 대

한 꾸준한 보도와 홍보활동을 펼치며 광주 전남 향군은 남도일보 앱 설치 및 활용, 향군 활동사항 제공, 향군 고유 사업 홍보자료 제공 등을 추진한다. 나종수 광주 전남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탄탄한 관계 형성으로 상호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전남 향군 회원과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의 남도일보 사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언론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서로 도움이 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경기도 향군, 코로나19 예방 위해 솔선수범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및 마스크 착용 캠페인 전개



경기도 향군(회장 황신철)은 9월4일 (주)상상플러스에서 덴탈마스크 3천 장을 기부 받아 3매씩 포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전단을 부착해 경기대학교 및 광고산 입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및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대표 안보단체인 재향군인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코로나19로 지친 도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신철 회장은 "최근 수도권에 재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재향군인회에서 솔선수범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31개 시·군 전역으로 캠페인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향군은 지난 8월26일 수원시청역과 수원역에서 도민들에게 마스크를 나누어 주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준수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다.

경남 울산 향군, 각급회 수해피해복구 성금 하동·합천에 각각 400만원 전달...거창·함양·의령·산청에도 격려금



경남 울산 향군(회장 손도수)은 9월1일 하동군청과 합천군청을 방문해 수해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해민을 위해 써 달라며 각각 향군회원들이 기탁한 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손도수 회장은 "수해 피해 복구가 한창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속히 복구되어 수해민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라며 조금이나마 수해 복구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기탁 소감과 바람을 전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시기에 수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위해 나눔을 해주니 매우 감사하며 전달해주신 성금은 골고루 분배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합천군 향군(회장 이형기)도 이날 수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돕기 위해 합천군에 300만원을 기탁했다. 한편 경남 울산 향군은 9월 11일에도 거창, 함양, 의령, 산청 향군을 방문, 수해복구에 써 달라며 격려금을 전달했다.

제주 해병대의 날... 해병훈탑 건립 60주년 기념



제주도 향군(회장 김달수)은 8월30일 인천상륙작전 출정 70주년 및 해병훈탑 건립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해병훈탑에서 거행된 제20회 제주해병대의 날 행사에 참석, 호국영령들의 얼을 기렸다.

통합방위협의회 참석... 김좌진 장군 참배도



대전 충남 향군(회장 박재운)은 홍성군에 소재한 김좌진 장군 생가지에서 열린 충청남도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석, 연안을 심의하고 장군의 사당인 백야사를 찾아 헌화 분향했다.

◆ 우수회 탐방 / 경상북도 향군

‘화합과 단결’ 무기로 혁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

향군발전위원회 구성 ... 다양한 아이디어 수렴, 참여의식 고취



경상북도 향군(회장 양정석)은 변화와 혁신을 통한 조직 강화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자체와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평가 받고 있다.

경북 향군이 이렇게 자신하는 데는 지난 2018년 2월 취임한 양정석 회장의 리더십과 추진력, 그리고 화합과 단결을 무기로 하나로 뭉친 56만 회원들의 저력이 녹아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및 지역업체와 유대론 재정위기 타개

경상북도 향군은 지역 최고 안보단체 위상 정립과 향군 정체성 확보를 위한 안보, 교육, 지역봉사활동 등의 사업 확대를 위해 양정석 회장을 비롯한 전 임직원들이 경상북도와 도의회 등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여기에 더해 운영비도 지원받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 회 재정수익 확보를 위해 포스코 등 지역업체와 유대를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특히 포스코와의 고철사업은 원활한 조직 운영에 큰 힘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임대수익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공실 0%를 달성, 재정위기 극복은 물론 원활한 사업추진과 직원들의 복지 증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



또 경북 향군은 조직강화를 위해 ‘향군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향군발전위원회는 명망 있고 조직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는 도회 및 시 군회 임직원 등으로 구성되어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듣고 종합하여 도회 운영 발전에 반영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경북 향군은 임직원들의 참여 의식과 복무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구성원간 소통과 화합의 장치로 활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 군 향군과 유대강화를 위해 지역을 순회하며 소통하고 있으며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도 향군차원에서 직접 시 군 지자체장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회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이런 연유로 경북 향군회원들과 전 임직원들은 자부심을 갖고 향군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캠프 ‘캐롤’과 지속적 교류 한미동맹 강화 ‘첨병’

경북 향군은 한미동맹강화를 위해 한미 친선교류행사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캠프 ‘캐롤’과 유대관계 강화를 위해 매년 6월에는 6.25전쟁 최대 격전지 중 하나였던 왜관 303고지 합동 추모식에 참석하여 산화한 미군 참전용사들을 추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2작전사령부 주관 낙동강 전승 기념행사를 지원하는 한편 매년 1회 한미친선 교류행사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국군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역 내 부대인 50사단, 3사관학교, 해병 1사단 등과 부대창설일, 지휘관 이취임식, 유해발굴행사 등 각종 행사에 정기적으로 적극 동참하여 위문금을

전달하는 지원하는 등 군과의 유대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대한민국 최고 안보단체로서 정체성을 확립을 위해 각종 연수회와 안보견학 행사등을 활성화하여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여성회, 다양한 봉사활동 실천 여성권의 향상에도 으뜸

여성회의 활동 또한 으뜸이다. 여성회는 여성권의 향상은 물론 바자회 등을 통하여 향군여성회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호국원 현충시설 정화작업, 농촌 일손돕기, 재해 구난구조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에 사랑받고 신뢰받는 여성회로 칭송받고 있다.

또한 최근 경북여성단체협의회장으로 선출된 흥순임 여성회장을 중심으로 지역 여성단체의 선봉에서 각종 봉사활동은 물론 안보활동에도 적극 앞장서 실천함으로써 신뢰받는 안보단체로 거듭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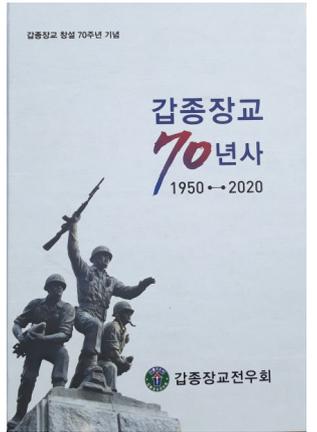
한미동맹과 국군 지원, 안보제도 등 다양한 안보활동뿐만 아니라 재난 시 대민지원, 취약계층 봉사활동 등 명실공히 경북향군은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하고 신뢰받는 단체로 거듭나고 있다. 이 같은 공로로 최근 양정석 회장은 자랑스런 도민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경북 향군은 코로나19로 당분간 어려움이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북 향군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회 및 시 군회 전 임직원들이 더욱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다짐한다. 대한민국 최고최대 안보단체라는 자부심과 소속감을 갖고 서로 화합하고 단결한다면 무난히 이를 이겨낼 것이라 자신하면서...

‘갑종장교 70년사’ 발간

갑종장교의 역사를 총망라한 ‘갑종장교 70년사’가 편찬, 발간됐다.

‘갑종장교 70년사’는 갑종장교의 탄생과 공훈 그리고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창설 70주년에 맞춰 제작됐다.



이 책은 70년의 긴 세월 이어져 왔던 갑종장교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현재의 국제정세와 안보상황 하에서 전후세대들의 호국안보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한 지침서가 되길 소망하면서 지난 2년6개월간의 산고 끝에 탄생했다.

또한 갑종장교의 70년간 공적을 발췌, 수록하고 회원들의 공훈과 호국정신을 쉬게 이해할 수 있도록 6.25전쟁 및 대간첩 작전, 베트남전 등의 전투 체험수기와 문예물 등이 편집되어 독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전후세대들에게 전쟁의 실상과 평화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호국안보정신을 고양하는 소중한 사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갑종장교는 6.25전쟁 발발 6개월 전인 1950년 1월 창설되어 생사를 넘나드는 수많은 전투 속에서 국가를 수호하고 자유를 지키는데 큰 공을 세웠다.

전쟁 후에도 남침야욕을 드러내고 침투한 적들을 소탕하고 섬멸하는 호국의 방패였다. 그리고 자유수호의 전사로 베트남전에 참전, 공산세력과 맞서 싸워 대한국군의 기개를 만방에 떨치기도 했다.

이임 박한기 합참의장 노고 격려



성우회(회장 이종욱)는 9월14일 이임인사차 방문한 박한기 합참의장을 맞아 그간 업무수행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 성우회 회원 가입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종욱 회장은 전역준비 등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성우회를 방문해 준 박한기 합참의장에게 37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영예로운 전역을 하게 된 것을 축하하고 그간의 열정에 대해서도 격려했다.

이날 환담에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평시 장병들의 교육훈련 상태 그리고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성우회의 입장과 합참의장의 견해를 공유하는 등 당면한 국방현안에 대한 심층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아울러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그 노력을 향후 성우회와 예비역 단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아낌없이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각급회 소식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고 안보 계도에 팔 걷어... 향군 각급회 활동

(8월21일 ~ 9월20일)

서울시 향군



강남구회 : 9월15일 강남 구민회관과 일대 사거리에서 코로나 19 위기극복을 위한 홍보 캠페인 및 안보 간담회 실시.

서대문구회 : 9월16일 향군회관 내 어린이 나라사랑 교육관에서 우리나라의 5대 상징물을 주제로 한 안보교육용 영상촬영.

동구회 : 9월4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동서시장과 주변지역에 대한 방역봉사활동 실시.

서구회 : 9월9일 서구청 복지정책과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보조금 관련 업무협조 요청.

중구회 : 9월17일 관내 인근식당에서 류규하 중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고 향군현안 논의.

달성군회 : 9월9일 보훈안보단체협의회에 참석, 안보관련 간담회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 동참 결의.



이천시회 : 부발읍회는 9월19일 효양산 약수터 및 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및 정화활동 실시.



충주시회 : 9월15일 수해와 태풍으로 침수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엄정면 회원 가구를 방문, 피해복구 위로금을 전달.

인천시 향군

남동구회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관내 공공시설 및 소래포구 공용시설 중심으로 8월중 정기적으로 방역소독 실시.

강원도 향군



동해시회 : 북평동 향군은 8월23일 추암 해변 일대에서 자연보호 및 해변 정화활동 전개.

대전 충남 향군



대전 동구회 : 9월15일 동구청 중회의실에서 수해복구 작업을 적극 지원해 준 육군 제1970부대 1대대 장병들에게 격려금을 전달.

부산시 향군



부산진구회 : 9월7일 육군3사관학교를 방문하여 향군과 유대를 강화하고 관내 청소년 병영체험 등 안보계도활동 지원 협의.



부평구회 : 9월15일 향군회관을 찾은 부평구의회 의장단(의장 홍순옥)을 맞이하여 회 현황 및 향군활동을 소개하고 유대강화.

충청북도 향군



청주시회 : 청년단은 9월11일 6·25참전 유공자 회원 가정을 방문, 추석 명절선물과 함께 마스크 전달. 9월2일 서원구 현도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수해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위문품 전달.

전라북도 향군

정읍시회 : 8월26일 유진섭 정읍시장 주관으로 도란도란 회관에서 열린 안보단체 간담회 참석, 현안 논의. 9월14일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사회적 마을기업의 고구마 줄기 채취 작업 봉사.



대구시 향군



경기도 향군

여주시회 : 9월3일 수해 피해를 입은 가구에 반찬 배달 봉사활동 실시. 9월14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여흥동 다중이용 시설 방역소독 실시.

남양주시회 : 8월21일 김영진 자문위원이 지원한 마스크 7,000매를 관내 10개 보훈안보단체에 전달하고 방역지원 및 마스크 착용 캠페인.

군번만 있으면

누구나 향군 정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간편한 정회원가입

향군 가맹점 보기

본부 및 각급회 소식

본부 및 각급회 연락처

향군 회원가입

향군 가맹점

각급회 소식

향군 연락처

■ 정회원 자격 : 군번호지자 누구나

- 육해공군, 해병대에서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
-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자
-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 정회원 특전

- 향군 편의시설 할인혜택
 - 중앙고속관광, 고성 통일전망대, 충주호관광선 등
- 전국 향군 우대가맹점 할인
 - 전국 가맹점별 할인(10~30%)
 - 군인공제회관 '엠플러스 웨딩' 할인 (웨딩, 뷔페 등 전품목 15%)
- 자녀 장학금/생계보조금 지급
- 국립 현충원/호국원 안장 대상자 안내
- 각종 향군행사 초청 및 참가
- 기타혜택 (복지물 등)

■ 평생회비 (단 1회만 납부)

병	부사관·위관	영관
1만원	2만원	5만원

QR 코드
← 모바일 바로보기

APP 다운로드 방법

GET IT ON Google Play

DOWNLOAD ON THE App Store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와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검색
상단에 나오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 APP을 클릭하여 설치 후 실행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원 가입문의 : 02)417-5412
홈페이지 : http://www.korva.or.kr

전주시회 : 9월5일 전주이중본과 향군우대가맹점 협약식을 갖고 회원 할인 요금 적용 혜택. 9월3일 전주시청 생활복지과를 방문, 보조금 지원 협조 요청.

무주군회 : 9월7일 관내 광고기획사 및 김용선베이커리와 향군 가맹점 협약을 체결하고 회원할인 혜택.

진안군회 : 9월8일 진안관과 향군 가맹점 협약식을 체결하고 회원할인 혜택.

부안군회 : 9월4일 '유가네 곰탕', '오후기 회관'과 가맹점 협약을 체결하고 회원 10% 할인 혜택. 여성회는 9월14일 부안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며 코로나 예방 캠페인 실시.



고창군회 : 여성회는 9월15일 자연보호 캠페인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친환경 비누 만들기 행사 참여.



김제시회 : 9월17일 향군회관을 방문한 김제시 부시장을 맞아 향군활동을 소개하고 상호 유대 강화.

광주 전남 향군



광주 서구회 : 9월3일 광천사거리 일대

에서 기초질서지키기 시민 캠페인 전개. 9월14일 광천사거리에서 최근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19 예방 캠페인 실시.



고흥군회 : 청년단은 8월24일 고흥군 전통시장에서 의용소방대 및 고흥소방서와 합동으로 방법순찰 및 화재예방을 위한 순회 방문 활동 전개.



완도군회 : 9월11일 더불어 민주당 완도군 당사에서 윤재갑 국회의원과 향군회관 증축을 위한 간담회 가저.

해남군회 : 9월1일 향군회관에서 12개 보훈단체장들과 해남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훈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보훈회관 건립 문제 토의하고 해남군 총흔담 참배.

영암군회 : 9월17일 왕인대대 장병면회실에서 장병들이 편리하게 군 생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LED전광판 전달.

경상북도 향군



청송군회 : 여성회는 9월1일 자원봉사우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맛을 담아 정을 나누는 '사랑의 반찬 나눔' 봉사 활동 전개.

영주시회 : 9월10일 회장단 간담회를 갖고



제68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개최 방법과 안보 현장견학 실시 여부 심의. 여성회는 9월1일 평은면 6·25참전유공자회 선양비 주변 정화활동 실시. 9월17일 영주3260부대 3대대를 찾아 장병들에게 마스크 전달. 부석면회는 9월18일 부석면 봉래소공원 일대에서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풀베기 봉사활동 실시.

경남 울산 향군



진주시회 : 8월28일 진주세란병원과 향군회관에서 향군 할인가맹점 협약식을 체결하고 회원에게 진료비 할인혜택. 9월18일 향군회관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진주 을 당협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향군 업무 협조 요청.



통영시회 : 여성회는 9월4일 통영경찰서 앞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의무 착용 캠페인 전개. 9월19일 통영종합버스터미널에서 주말 시외버스 이용 승객들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 봉사활동 실시.

거제시회 : 9월7일 태풍으로 인해 훼손된 인도 및 간선도로 정화활동 실시. 9월10일 태풍 하이선으로 훼손된 거제휴게소 아래 대금마을을 바다 환경정화활동 실시. 아주동회는 3·1 기념탑 주변 풀베기 및 환경정화

작업을 펼치고 격려금도 전달.

김해시회 : 여성회는 9월16일 내외동 일



대에서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과 사람 간 거리두기, 손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 홍보활동 전개. 청년단은 9월15일 전원의 행복밥집에서 무료급식 봉사 실시.

의령군회 : 청년단은 9월10일 한가위를 맞이하여 통일동산 6·25참전 유공자비와 주변 자연정화활동 실시.

창원 진해구회 : 9월8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여성친화도시 비전 선포식'에서 류화자 여성회장이 창원시장 표창 받아.

하동군회 : 8월24일 적량면 호국공원 제초작업 및 공원주변 환경정화활동 실시. 여성회는 8월22일 장애인 생활시설 사랑의 집에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을 위해 밑반찬 및 간식을 전달.

울산 울주군회 : 9월4일, 5일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입은 서생면 일대 과수농가를 찾아 피해 복구 지원.

울산 중구회 : 9월17일 울산 세민병원, 좋은의사들 안과병원, 디지털 365치과와 향군할인가맹점 협약을 체결하고 회원복지 증진.

제주도 향군



제주도회 : 9월15일부터 6·25참전유공자회 등 보훈단체 및 불우 향군회원 10가구를 대상으로 도배 및 장판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실시.

제주시회 : 9월18일 성심노인요양원을 방문, 가을 묘종심기 봉사활동 전개.

통일전망대 8월14일 운영 재개

강원도 고성군 대표 평화안보관광지인 통일전망대가 172일 만인 2020년 8월14일부터 다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주)통일전망대

우리나라 최북단에 위치한 통일안보 체험장!

033)682-0088

6·25전쟁 70주년 특별기획 6·25전쟁 전승기념관을 찾아 ⑨

정전협정 앞두고 유리한 지역 선점위한 치열한 전투

국군 제9사단, 중공군 파상공세 물리치고 철의 삼각지대 사수



백마고지 기념관

휴전을 앞두고 군사적 요지를 확보하고 정전회담에서 계속 유리한 입장을 지킬 수 있게 한 백마고지 전투를 기념하여 백마고지 정상에 기념관과 전적비, 호국영령 충혼비가

건립되어 호국영령들의 위훈을 기리고 매년 10월16일을 전승 기념일로 삼아 민·관·군 합동 위령제를 거행하고 있다.

백마고지는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북서쪽으로 약 12km 지점에 있는 해발 395m의 고지로서 군사적 관례에 따라 395고지라고도 한다. 6·25전

쟁 때 국군과 중공군이 이 고지를 차지하기 위하여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 심한 포격으로 산등성이가 허영게 벗겨져서 하늘에서 내려보면 마치 백마가 쓰러져 누운 듯한 형상을 하였으므로 '백마고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백마고지 전투

1951년 7월 정전회담이 시작되어 정전협정이 체결되는 시점의 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삼기로 정한 뒤 한국·유엔군과 북한·중공군 양측은 조금이라도 유리한 지역을 차지하기 위하여 치열한 전투를 치렀다. 백마고지는 중부전선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철의 삼각지대(철원·김화·평강)'의 하나인 철원평야와 서울을 연결하는 군사적 요충지로서 당시 김중오 소장이 지휘하는 국군 제9사단이 방어하고 있었다.

1952년 10월6일 중공군은 백마고지 일대에 2000여 발의 포탄을 투하하며 공격을 개시하였다. 중공군은

제38군 예하의 제112·113·114사단의 약 4만 5000명의 병사를 동원하였으며, 아군은 제9사단 예하의 제28·29·30연대를 비롯하여 경장비 제51연대, 53전차중대, 제1포병단 등의 국군과 제5공군, 제73전차대대, 제49·제213·955 포병대대 등의 미군이 맞서 싸웠다.

10월6일에서 10월15일까지 열흘간 24차례나 주인이 바뀔 정도로 혈전을 치른 끝에 제9사단이 중공군을 격퇴하고 승리하였다. 이 전투에서 아군은 21만 9954발의 포탄을, 중공군은 5만 5000발의 포탄을 발사한 것으로 기록된다. 중공군은 1만여 명이 사상자 또는 포로가 되었고 제38군은 막대한 타격을 입고 후방으로 물러났다. 제9사단도



34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이 전투의 승리로 백마부대로 불리게 되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는 대표 질병

40대부터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하는 당뇨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0~2015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당뇨병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 5년 만에 24.6% 증가했다. 당뇨병은 세포가 노화하기 시작하고, 운동 부족과 흡연, 스트레스 등 좋지 않은 생활 습관으로 나타나는 질환으로 40대부터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한다. 2015년 기준으로 남성은 50대, 여성은 60대에서 진료 인원이 가장 많았다. 주요 증상으로 다음(多飲), 다식(多食), 다뇨(多尿) 등이 있다.

음주를 즐기는 50대 알코올성 간질환 조심

알코올성 간질환의 진료 인원 중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6.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2015년 기준) 50대가 33%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31.4%), 40대(22.3%), 30대(10.2%) 순이었다. 알코올성 간질환은 과다한 음주로 발생하며 알코올성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알코올성 간경변증으로 구분한다. 10년 넘게 이어오던 음주로 인해 50대 이후 알코올성 간질환이 많이 발생한다. 또한 금주 등 적절하게 조절해야 하는 상태인데도 음주를 지속해 60대 이후에도 여전히 환자가 많은 것으로 추정한다. 초기 단계는 대개 증상이 없고 이따금 오심, 황달, 복통 등 일으킬 수 있다.

60세 이상이라면 주의해야 할 만성콩팥병

만성콩팥병이란 3개월 이상 만성적으로 콩팥이 손상되거나 콩팥 기능이 저하되어 발생하는 각종 질환을 말한다. 만성콩팥병이 악화되면 말기신부전으로 되어 투석이나 신장이식을 해야 한다. 일부 환자의 경우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되기 전에 뇌졸중이나 관상동맥질환이 먼저 나타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으며 병이 진행되면서 거품뇨(단백뇨), 혈뇨, 소변을 자주 봄, 옆구리 통증, 부종 등이 있다.

60대 10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고지혈증

최근 5년간 고지혈증으로 진료받은 인원이 연평균 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고지혈증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를 연령대별 인구수를 고려해 '인구 10만 명당' 진료 인원을 분석했다. 가장 많은 연령대는 60대였고, 70대가 60대 뒤를 이어 중·장년층이 인구 대비 고지혈증 환자 수가 많았다. 또 50대 이상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는데 특히 60대는 10만 명당 여성 진료 인원이 남성의 약 두 배였다. 고지혈증은 서구화된 식습관, 운동 부족, 비만 등이 원인일 수 있으며 당뇨나 갑상샘기능저하증 등 신장질환에서 에너지대사에 문제가 발생해 나타나기 쉽다. 경미한 동맥경화일 때 증세가 전혀 없고 증세를 느낄 경우 이미 합병증이 진행된 시기다. 혈관 부위별로 문제가 발생해 여러 합병증을 초래한다. <국민건강보험>

경 제68주년 재향군인의 날 축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창설이후 68년 동안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나 국가적 안보위기가 있을 때마다 국가안보 제2의 보루로서 중심적 역할을 다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향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강도 높은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군장학기금

※ 기간 : ('20년 7월 22일 ~ '20년 9월 20일)
※ 단위 : 기부구좌(기부누계), 1구좌 1만원

▶ 정기기부

- 前 홍보실장 이정호 1(271) • 권율부대 강모아 2(62)
- ♣ 따뜻한 정성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학재단 : ☎ 02-417-5887)
-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홈페이지에도 기부현황을 게시하였습니다.

향군장학기금 기부 계좌 안내

계좌번호 : 국민은행 801701-04-194529
예금주 : 재단법인 향군장학재단